폭염 '짜증 범죄·사고' 주의

익사·질식사 등 잇따르고 사소한 시비끝 폭력도

최근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무더위로 치솟은 불쾌지수를 참지 못하는 '짜증 범죄'와 익사·질식사·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물놀이 사고 잇따라**=지난 6일 오후 4시 40분께 순천시 서면 청소골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고모(24)씨가 물에 빠진 뒤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고씨가 3m 높이의 바위에서 물 속으로 뛰어든 뒤 떠오르지 않았다는 친구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께 신안군 대흑산도 앞바다에서 홍합을 캐던 문모(여·74)씨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숨졌다.

◇**선풍기 질식**=최근 선풍기 사용량이 늘면서 이로 인한 안전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10시께 북구 두암동 성모(여·56)씨의 집에서 세들어 살던 조모(56)씨가 자신의 방에 숨져 있는 것을 성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성씨는 경찰에서 "아침에 조씨가 보이지 않아 방안에 가봤더니 조씨가 선풍기를 얼굴방향으로 켜놓은 채 누워 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8일에도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N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선풍기를 켜둔 채 잠을 자던 직원 이모(35)씨가 숨졌다.

◇**가전제품 화재도**=지난 6일 오전 9시40분께 남구 칠석동 반모(72)씨의 간이 창고에서 가스레인지로 조리를 하던 중 2ℓ 페트병 안에 있던 휘발유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불이나 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선풍기 화재도 잇따르고 있다. 올들어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2건 발생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6건의 화재가 발생했었다. 지난달 22일 밤 9시58분께 북구 일곡동 A원룸에 사는 박모(44)씨의 집에서 선풍기 모터 과열로 인한 불이나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진화됐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동구 소태동 M중학교 교실에서 선풍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면서 사소한 시비로 가족간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잦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무심코 마신 술 한잔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며 "조금씩 참고 양보하며 자신을 이기는 게 곧 더위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폭포밑 피서 7일 구례의 낮 최고기온이 35.7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남 일부지역에 올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구례군 산동면 수락폭포 아래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물줄기를 맞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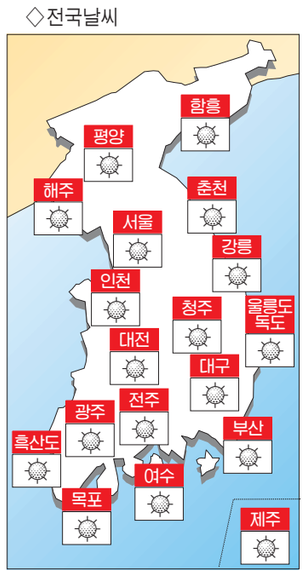
팥빙수 생각나는 날

7월 8일 (음 6월 6일) 날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24~32℃
목 포	구름 조금	23~28℃
여 수	구름 조금	23~29℃
완 도	구름 조금	22~30℃
구 례	구름 조금	24~34℃
해 남	구름 조금	23~31℃
장 흥	구름 조금	22~32℃
고 흥	구름 조금	22~31℃
순 천	구름 조금	23~33℃
영 광	구름 조금	24~31℃
진 도	구름 조금	23~31℃
전 주	구름 조금	24~33℃
남 원	구름 조금	24~32℃
흑산도	구름 조금	19~24℃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0.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0.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0.5~0.5m

목 포 밀물 05:57 18:12 썰물 11:07 23:14
여 수 밀물 00:24 12:45 썰물 06:31 18:42

▲해뜸 05:25 ▲해짐 19:50 ▲달뜸 10:50 ▲달짐 23:0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날 씨						
최저/최고	24/31	22/30	22/27	22/29	22/29	22/30

무더위속 씁쓸한 세태

"에어컨 껐다" 때리자 아들이 아버지 신고

아버지에게 훈계와 함께 손찌검을 당한 아들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해 씁쓸한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광주 모 고교 3년 유모(18)군은 7일 새벽 1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K아파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버지(50)에게 훈계를 들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거실의 에어컨의 전원을 끈 것이 발단이었다. 계속되던 훈계는 결국 손찌검으로 변했다. 뒤통수를 세차례 얻어 맞은 유군은 아버지를 경찰에 전화로 신고했다. 평소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고 집안 살림을 부셨다는 게 이유였다.

유군은 경찰에서 "어머니가 시켜 에어컨을 껐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뒤통수를 때렸다.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휘둘러 화가 났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평소 고3 수험생인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밤 늦게까지 인터넷 게임에만 몰두해 있는 것에 화가 나 있었는데, 짜증나는 날씨에 에어컨을 꺼버리자 주먹이 나갔다"며 씁쓸해했다. 광주북부경찰은 이날 아들을 폭행한 유씨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로스쿨 등록금 최고 2천만원

연간 평균 1,437만원

내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이 대학별로 최소 800만원대에서 최고 2천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입학정원 변동에 따라 8개 대학이 당초 계획보다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권역 4개 대학 중에는 원광대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로부터 최종 설치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에 따르면 원광대 200만원을 비롯해 경희대(160만원), 서강대(260만원), 서울시립대(150만원), 아주대(300만원), 연세대(290만원), 이화여대(230만원), 중앙대(130만원) 등 8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다.

연간 등록금이 가장 낮은 대학은 충남대(863만원)였으며,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2천만원)였다. 국립대만 놓고 보면 충남대가 가장 낮고 서울대(1천350만원)가 가장 높았으며 사립대의 경우 서강대(1천440만원)가 가장 낮고 성균관대가 가장 높았다.

25개 대학의 전체 등록금 평균은 연간 1천437만원, 소재별로는 서울권역 평균이 1천608만원으로 서울외권역(1천184만원)보다 높았다. 광주권역 4개 대학은 각각 ▲전남대 981만8천원 ▲전북대 950만원 ▲원광대 1천600만원 등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권역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 현황

대학	예비입학정원	전액장학생비율	연간등록금(만원)	입학금(만원)	특성화분야
전남대	120	24.7%	963.2	18.6	공익인권법
전북대	80	20.1%	930	20	동북아법
원광대	60	43%	1,500	100	의생명과학법
제주대	40	32%	1,000	18.7	국제법무

좌익·인민군, 무안 천장리 주민 96명 학살

"10세 이하 어린이 22명 희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7일 "한국전쟁 당시 7개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적대세력 사건'을 조사한 결과 우익인사 591~595명이 지방좌익과 인민군에 의해 희생당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적대세력 사건'은 인민군 점령시기와 퇴각 과정에서 우익에 우호적인 가족이나 경찰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빨치산, 정치보위부원 등 지방좌익과 인민군에 의해 저질러진 무차별적인 '적대테러'를 뜻한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사건'을 비롯해 금산, 당진, 완주, 무주, 통영, 인천경찰서 등에서 '적대세력 사건' 7건을 조사해왔다.

진실화해위는 "무안 해제면 천장리에서 가족 단위 주민 96명, 당진에서 전·현직 군경과 대한청년단원 등 250여 명이 희생되는 등 7개 지역에서 모두 591~595명이 희생됐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특히 "천장리 사건 희생자 중에는 10세 이하 어린이 22명과 여성 43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양 고교내 집단폭행

광양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폭력사건이 발생해 피해 학생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7일 학교와 피해 학생 부모에 따르면 지난 3일 광양 J고 교내에서 이 학교 1학년 김모(17)군이 같은 학년 정모(17) 군 등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정군 등은 김군이 자신들의 친구를 무시한다며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으며, 지난 5일에도 김군을 학교 부근 야산으로 데리고 간 뒤 폭력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김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26·27일 고흥서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로 인해 고조된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전국 항공우주과학 경진 본선대회'가 고흥에서 열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에는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고교생 800명이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항공우주과학 실력을 겨룬다.

오는 9월 4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준공기념에 맞춰 26~27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모형로켓과 물로켓,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등 4종목에서 경합을 벌여 금·은·동상의 수상자를 결정한다.

전남도는 이번 경진대회에 학생을 포함, 인솔교사와 학부모 등 1천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순천의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등을 이용해 숙박을 돕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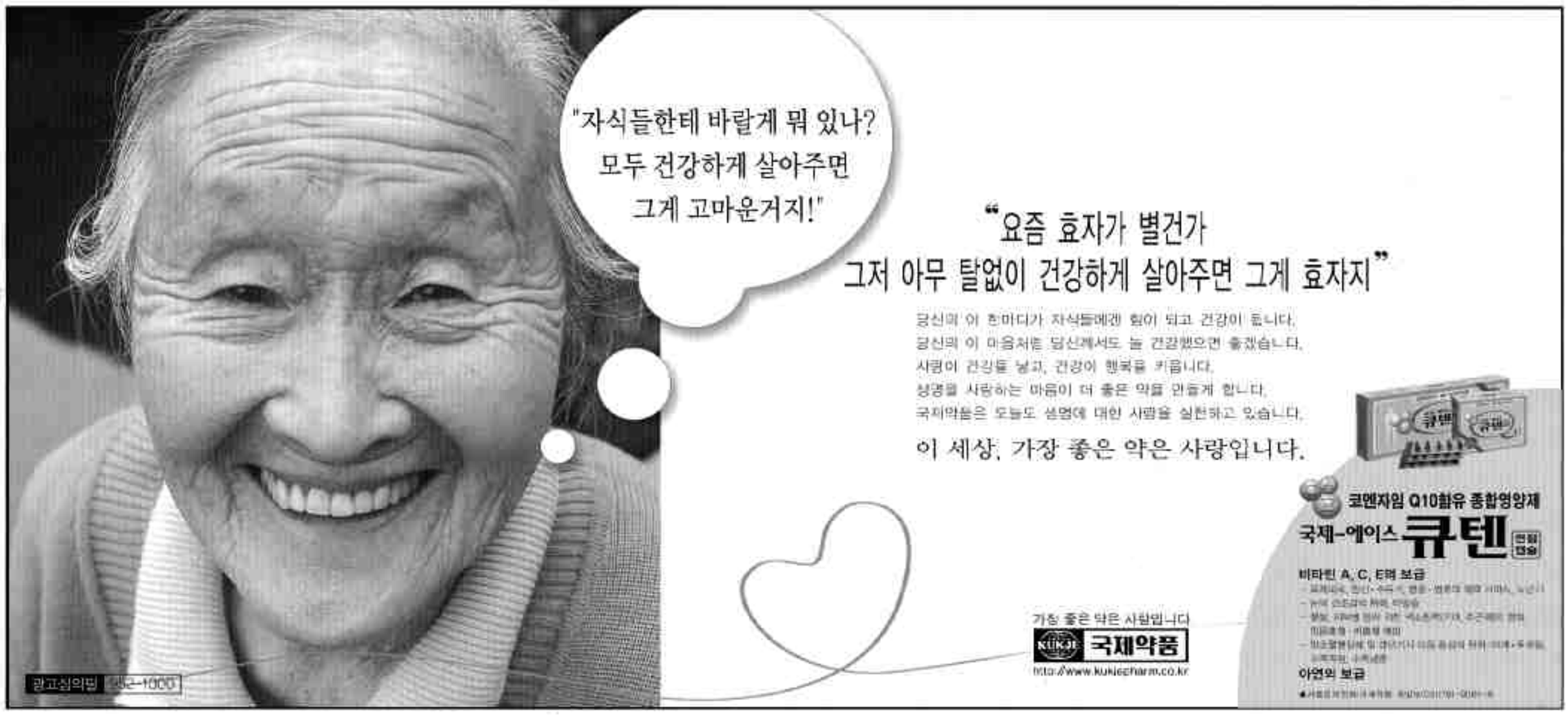
전남도는 이 밖에도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17~18일에는 전남과학축전을, 10월 17일에는 모형태양광자동차 경주대회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일반직 공제회 해산 결정

광주시교육청

운영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교육청 일반직공제회(이하 공제회)가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공제회는 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870명(2008년 6월 현재)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회원 사망이나 퇴직시 부조급 지급 규모가 하위직에 불리하게 돼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공제회는 7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공제회 해산을 위해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산위원회는 5급 이상 3명, 6~7급 4명, 8~9급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남은 기금의 배분 등 구체적인 해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6월말 현재 공제회 조성 금액은 31억3천87만9천730원이다. /정상필기자 camus@